

방송심의 규정에 관한 위반 사항

방송내용 - 1	심의규정 위반 사항
<p>미군정 브라운 대령은 5월 10총선거 실패로 해안선 차단하고 강경진압뿐이다. 박진경 11연대장 주도로 5월 15일 작전(사진)실시. 폭도출현 지역 농민들 체포하여 농업학교 주민들 수용했다.</p> <p>*김종민: 박진경 연대장 작전시 주민들 포로로 6,000여명이나 끌려갔다. 무장대는 500여명이었다.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박진경 연대장이 학살명령을 했다</p>	<p>반박:</p> <p>박진경 제11연대장의 작전 *작전은 2차례에 걸쳐 작전계획 세움.</p> <p>1. 제1차작전: 5. 30 ~ 6. 2. 수색작전 큰 접전 없이 어승색악에서 인민유격대 보급창 발견 ※작전지역에서 적에 협조가 의심되는 중간 마을의 50세까지의 청장년들을 연행하여 4개 심문팀에 넘겼다. 심문팀은 경찰, 군, 미군 등으로 구성하였다. 남로당 가입과 자위대활동 가담 및 식량지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의심이 없을때는 즉각 석방하였다.</p> <p>이때 문상길은 9연대 1대대 제3중대장으로서 작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아프다고 피병을 부려 제주도립병원에 입원하였다. 이것은 박진경대령 암살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p> <p>2. 제2차작전: 6. 13 ~ 6. 17 4일간 4개대대가 한라산을 4개 방향에서 포위하여 한라산 백록담쪽으로 포위 토벌하는 공격하는 방법이다. 2차 작전은 누군가에 의해 남로당인민유격대에 알려져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p> <p><u>*1·2차작전에서 약 3,000여 명이 연행되어 심사를 받았고 1948.6.16. 현재 현재 혐의가 없어 대부분 풀려나고 여성 2명을 포함해 575명이 제주의 포로수용소에 있었으며 한·미 혼성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아 이들도 그후 모두 풀려났습니다.</u></p> <p><u>*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민이가 말한 6,000여명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고 많은 인원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u></p>

방송내용 - 2	심의규정 위반 사항
<p>박진경 연대장 강경진압 토벌작전으로 제9연대 군인들 반발로 탈영했다.</p>	<p>반박:</p> <p><u>*제11연대 작전기간중에는 제9연대 군인 탈영 사고는 없었다.</u></p> <p>- 제9연대 1대대의 집단탈영사건 경비대와 경찰이 인민유격대 진압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5월 20일 밤, 모슬포의 제9연대 1대대에서 통신대의 최모 상사 인솔하에 하사관 11명과 병사 30명 등 41명이 총기와 실탄 5,600발을 휴대하고 차량으로 집단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p> <p>탈영사건은 4월 20일경의 3중대장 문상길 중위와 인민유격대군사총책 김달삼과의 회합에서 경비대 병사들을 탈영시켜 인민유격대에 합류시키기로 한 합의와 또 5월 10일의 김달삼과 오일균의 밀담에 따른 것으로서 이날 대 당직근무였던 문상길의 조치였다.</p> <p>당일 당직사령인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는 병사들의 탈영사실을 알고는 새벽녘에 비상을 걸었으나 인원점검만 했을 뿐 적극적인 탈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p> <p>완전무장한 탈영병들은 부대 인근의 대정지서를 공격하여 경찰 4명과 급사 1명 등 5명을 사살하고 지서주임등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p> <p><u>*박진경 대령의 강경진압으로 인한 9연대 제11대대의 집단탈영 주장은 허구이고 날조이다.</u></p>

방송내용 - 3	심의규정 위반 사항
<p><u>진압 토벌 공로로 박진경 대령 승승장구 한달만에 승진 선임자를 앞지른 특진이였다.</u></p>	<p>**반박: 1948. 5. 6 제9연대장으로 부임한 박진경중령은 5월 16일부로 제11연대¹⁾장이 된다. 부족한 장교 6명(대대장 3명, 연대참모 3명)을 긴급 충원을 받아 5월 30일부터 작전을 전개하였다. 6월 1일부로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박진경의 진급은 4개 전투대대(부대)를 지휘·관리하느라 여단장급으로 격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직위 진급 성격의 대령 진급이었다.</p> <p>*박진경 연대장의 첫 번째 작전은 5월 30일에서 6월 2일까지 였는데 교전한 사실은 없고 산으로 들어간 주민들을 연행하여 한민훈성팀에 인계한 것 뿐이고 전과는 미비하였다.</p> <p>*대령 진급은 늦어도 작전개시 이전인 5월 중순경 결정된 것이고</p> <p>*실적도 없이 토벌의지로만 진급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p>

1) 국방경비사령부는 5월 1일 제2·제3·제4·제5·제6연대에서 기간 요원을 차출하여 수원에서 제11연대를 창설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5월 5일에 제주도로 이동시켜 1개 대대 규모의 9연대와 부산의 5연대에서 배속된 오일군대대를 흡수하여 완전한 연대 규모를 갖추게 한 다음 본격적인 폭동진압에 나섰다. 연대는 제1여단에 예속되었다.

방송내용 - 4	심의규정 위반 사항
<p>*암살 범인은 제9연대 군인들이었다. 문상길은 김달삼은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을 뿐 절대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달삼 - 문상길 - 손선호 지령이라고 질의 했으나 동족상잔을 피하기위해서이다.</p>	<p>*남로당 인민유격대 진압에 적극적인 박진경 중령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남로당 프락치에 의해 남로당에 즉각 전달되었다. 남로당 중앙당은 군의 인사조치에 대응해서 즉시 오르그를 내려보냈는데 이 <u>오르그</u>는 박진경 중령 부임 하루 뒤인 5월 7일에 열차와 선박편으로 제주도 도에 도착하였다. 제주에 도착한 중앙당 오르그는 3월 15일에 전남 오르그가 한 말과 같은 내용인 국경프락치에 대한 지도는 도당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u>인민유격대 대표와 국경프락치 대표간의 회담을 추진하였다.</u> 3일 후에 5월 10일 (총선일)날에는 제주읍에서 도당 대표로서 군책 김달삼, 조직책 김양근 2명과 국경측에서 오일군 대대장 및 부관 ○○○, 9연대 정보관 이윤락 소위 등 3명, 계 5명이 비밀 회합하여 정보교환, 무기공급, 토벌작전 사보타주, 탈영병 적극 추진, 특히 <u>'반동의 거두 박진경 연대장' 이하 반동 장교들을 숙청 하기로 합의</u>²⁾ (박진경 부임 4일 만에 숙청계획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동기생인 연대 정보관 이윤락 소위를 통하여 문상길에게 통보되었다.</p> <p><u>*박진경 대령 암살은 남로당 중앙당에서 파견된 지도원의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남로당중앙당의 결정이다. 문상길이 고등군법회의에서 상부로부터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거짓이었을 뿐이다.</u></p>

2) 「한라산은 알고 있다」 79~80쪽, 문창송, 1995.8.15.

방송내용 - 5	심의규정 위반 사항
<p>*박찬식: 김익렬 회고록 인용: “우리 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래서라도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초토화작전을 감행하겠다는 의지의 발표였다.” 3)</p>	<p>**반박: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였다고 하였다. 기사는 김익렬의 유고에만 나온다.</p> <p>좌파성향의 조선중앙일보 1948. 8. 14 “문 중위는 소위 산측 사령관 김달삼과의 관계에 대하여 <u>전후 2회</u> 걸쳐 만난 일은 있으나 암살지령에 대하여는 이를 단연 부인하였다.-----</p> <p><u>처음으로</u> 김달삼을 만난 이유는 김중령과 회견시키기 위해서였고, <u>두 번째는</u> 박 대령 부임 후였는데 그 때 김달삼은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을 뿐 절대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p> <p>여기에서 문상길은 김달삼이 ‘박진경 연대장을 살해했으면 좋겠다’ 는 말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김달삼’ 지령설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국방경비대 제9연대 남로당 프락치 문상길 중위는 이 자리에서 1948년 4월 20일 국방경비대 제5연대 1개 대대가 제주도에 파견되는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달삼과 회동한 사실과 5월 10일 김달삼·오일균 밀담에서 박진경 연대장을 숙청 제거하기로 한 합의 사실등을 일체 말하지 않았다. 남로당제주읍위원회가 문상길에게 박진경을 암살하라고 압력을 가했다.</p> <p>*5월 10일 김달삼-오일균 회담에서 박연대장 숙청 결정은 5월 7일 중앙당에서 파견된 오르그의 구두지시로 보아야 하고 이는 남로당중앙당의 결정이다. 그럼에도 문상길 중위가 상부의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은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다. 박진경 연대장이 ” 제주도민 30만 희생 시켜도 무방하다는 “ 말을 했다는 김익렬의 유고는 녹음이 되어있지 않은 김익렬의 유고는 믿을 수 없다. 뿔뿔하다면 자기 생전에 말하지 않고 왜 사후에 유고로서 그런 말을 남겼는가?</p>

3)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②. (서울 : 전예원, 1994). pp.345~346. (김익렬 유고 4·3의 진실)

방송내용 - 6	심의규정 위반 사항
<p>**박진경 대령 작전 평가</p> <p>“우리 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p>	<p>입산주민에 대한 하산 중점을 둔 선무공작과 무자비한 토벌작전으로 나뉜다.</p> <p>주민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단위대장에게 선무공작을 강조하였다.</p> <p>부정적인 평가로 김익렬회고록에 나온 박진경 연대장 취임식의 “우리 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했는데</p> <p>이것은 토벌의지를 나타낸 것이지 이런 발언으로 실제로 주민을 학살했다는 행적은 없다.</p> <p>박진경 연대장은 작전중 4개 심사팀을 운영하여 3,000여명을 조사하였을 뿐이었다.</p>

방송내용 - 7	심의규정 위반 사항
<p>1948년 6월 18일 새벽 박진경대령 암살</p>	<p>박진경 대령 암살은 부임 5일째인 5월 10일 오일균-김달삼 회담에서 결정되었다.</p> <p>제11연대4)장 박진경 대령이 작전 마지막 날인 1948년 6월 17일 저녁 제주시내 있었던 옥성정, 그의 진급 축하연은 제주도지사가 수락한 자리로서 미군정 요인과 11연대 참모, 그리고 통위부에서 파견된 장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p> <p>1948년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에 제11연대본부에 위치한 그의 숙소 침대에서 밖에서 창문을 열고 일부는 경계를 하고 한사람이 전등을 비추는 가운데 제9연대 1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의 지시를 받은 손선호 하사에 의해 M-1층으로 저격당했다. 박진경 대령이 암살된 제11연대본부는 당시 제주농업중학교에 위치하고 있었다. 젊은 고급 장교로 유명을 달리한 박진경 대령의 그때 나이는 28세였다.</p> <p>박진경이 암살된 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수사가 미궁에 빠졌을 때, 사건 7일만에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와 연대 정보과 선임하사를 잡아보면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투서가 들어왔다.</p> <p>암살 사건의 혐의자 중 직접 박진경 대령을 쏜 범인은 부산 5연대에서 파견된 손선호5)(당시 22세)하사이며 이밖에 암살 공모자는 양회천 이등상사, 김정도 하사, 강자규 중사, 배경용 하사, 황주복 하사, 신상우 하사, 이정우6) 하사 등이었다. 문상길7) 중위는 이들을 지휘해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주범으로 부각되었다. 김종평 정보참모는 "9연대 문상길 중위를 조사하라"는 투서로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문중위를 체포하고 이 사건으로 연대 장병 8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는데, <u>이중 제주 출신 병사는 강자규8) 한 사람 이었다.</u></p>

4) 육지에서 창설된 11연대가 제주도로 진주하여 주둔하면서 9연대는 11연대로 편입된다. 박진경 대령 암살 이후 1948년 7월 11연대가 다시 수원으로 돌아가고, 이후 송요찬이 9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9연대는 전도적으로 주둔지를 넓히고 2연대로 교체되기 전까지 제주도 토벌대의 핵심이 된다.

5) 시체를 매만지며 눈물을 흘리던 그 위생병이 바로 M1 소총으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사람이다. 당시 22세로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10월 폭동에 가담했다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경비대에 입대하자로서 문상길 중위가 사

방송내용 - 8	심의규정 위반 사항
<p>박찬식: 문상길을 의인으로 만들고 있다. 문상길은 전단을 뿌리고 5·10총선거를 앞두고 평화협상을 시도했다. 김익렬회고록: 우리는 군인으로서 우리 민족이기에 민족반역자 처형.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p>	<p>문상길은 국군준비대에 입대하고 민애청조직에도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국군준비대가 해산되자 대구 제6연대 1기생으로 입대하여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생으로 임관하여 제주 제9연대에 배치되었다. 남로당 장교 프락치로서 미군정이 국방경비대에게 출동을 내리면서 5연대 2대대(오일균 소령)를 제주로 보내자 제9연대 남로당프락치인 문상길 중위는 남로당제주군사총책 김달삼에게 긴급연락을 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김달삼은 국방경비대도 4·3폭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상길은 국방경비대의 세포는 중앙 직속이므로 도당의 지시에 복종할 수 없으나 행동의 통일을 위하여 밀접한 정보 교환, 최대한의 무기 공급, <u>인민군유격대 원조 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u>, 교양자료의 배포 등의 문제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더욱이 최후 단계에는 총궐기하여 인민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약속하였다. 9연대 이치업 연대장을 독살, 11연대장 최경록 2번이나 암살하려 했고, 이세호 대대장도 암살하려했다.</p> <p>문상길은 암살로 열린 고등군법회의에서 “억울합니다. 내가 전 연대장을 독살만 시켰다면 지금쯤 평양에 가서 최고영웅훈장을 탔을 터인데, 그걸 못해서 억울합니다. 라고 증언(이치업 제9연대 2대 연대장 증언)</p> <p><u>*문상길은 ” 의인 “이 아니라 골수 남로당 공산주의자로서 제9연대 남로당 장교 프락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상관인 연대장을 살인을 주동한 살해범이다.</u></p>

형되기까지 남로당원들을 불지 않으므로 오일균과 이윤락 중위도 무사하였다고 한다.

- 6) 이정우는 M-1총을 소지하고 남로당인민유격대에 입산하여 체포를 피했다.
- 7) 문상길 두손은 수갑, 팔은 굵은 동아줄에 묶이고 양발도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 8) 북제주 애월면 상귀리 출신 28세. 제2연대고등군법회의 사형(1949.06.28.)

방송내용 - 9	심의규정 위반 사항
<p>김창후: 5월 10일 총선거 투표 거부를 위해 외도, 삼양, 화북주민들 마을에 강력한 지서가 있어도 선거 전후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2개 선거구가 무효화 되었다.</p>	<p>4.3폭동은 5월 10일에 있을 제헌의회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p> <p>제주 전역에는 4월 중순부터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습당하고, 투표소의 선거관련 서류들이 탈취당하고, “모든 지방관리들은 사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삐라가 뿌려졌다.</p> <p>선거업무 공무원이 피습당하고 마을 리장들이 납치되는 가운데 5월 10일 당일에는 제주읍과 북제주 관내 투표소 대부분이 기습을 받아 관련자들이 살해당하고 투표용지를 탈취당하고 투표소가 불에 뒀다.</p> <p>*남로당 마을 세포책 주동하에 마을 사람들이 대거 오름, 꽃자왈에 강제로 올라갔다. 선거에 참여 하면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고 남로당 조직원들에게 미움을 당할것으로 걱정한 나머지 산으로 올라갔다.</p>



▲ 5·10단선을 거부해 입산한 제주도민들
사진 설명도 잘못되었다.

** 수정해야 할 사항

남로당제주도당은 각 마을 세포 조직을 통하여 마을 자위대로 하여금 5·10제헌의원 선출 총선거의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까지 산으로 올려보내어 선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5월 10일날 선거 당일에는 노골적으로 남로당원들이 주동이 되어 주민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선거관련 업무 담당자나 우익 인사와 그 가족을 테러하고, 선거사무실을 습격하여 선거 관련 서류를 탈취하는 등 선거를 방해하는 사건을 일으켰다.